



“올해 목표 20승 2점대 방어율”

류현진 “겨울 잘 준비...부상 아니면 충분”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LA 다저스)이 20승 포부를 품고 미국으로 떠났다. 30일 인천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를 탔다.

류현진은 약 두 달 간의 국내 체류 기간 시즌 준비를 위해 개인 훈련에 힘써 왔다.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뒤 애리조나로 이동해 스프링캠프에 진념, 2019시즌 준비에 들어간다.

답답한 표정으로 귀국길에 오른 류현진은 올해 목표를 20승으로 잡았다.

“겨울 동안 잘 준비했고, 기분 좋게 떠난다. 체계적으로 운동했다”며 “불편 피로도 세 번 했는데 부구수 느낌 등 전체적으로 좋은 상태였다. 미국 가서도 캠프를 시작하기 전 몇 번 더하면 충분할

거 같다. LA에 가서 2~3일 후 바로 애리조나로 넘어가서 팀 훈련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표는 20승이다. 모든 선발투수들의 목표일 것이다. 그 수치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부상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매경기 퀄리티 스타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승은 어려운 수치다. 메이저리그에서도 매년 1~2명의 선수들만 하는 기록이다. 하겠다가 아니고 하고싶다는 바람이다. 2점대 방어율도 기록하고 싶다”고 전했다.

최근 몇 년 간 부상으로 고전한 류현진은 부상을 경계했다. “어느 해나 마찬가지로 항상 매 시즌이 중요하다. 부상자 명단에 안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부상만 아니면 충분히 경쟁력 있게 한 시즌을 잘 소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류현진은 부상에서 회복한 지난해 후반기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사실상 팀의 에이스 역할을 소화했다. 15경기에 등판해 7승 3패, 평균자책점 1.97을 기록했다. 월드 시리즈에서 한국인 최초로 선발 마운트에 오르기도 했다.

프리미어 12 등 국제대회 출전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참가를 하게 되면 영광스러운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가 없고 기회가 되고, 불려만 주신다면 출전할 것이다. 김경문 감독님이 대표팀을 맡았을 때 성적도 좋았다. 올림픽 금메달 업적도 남기셨다. 선수들도 감독님을 믿고 따라가 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뉴스스

ZIPS “올해 88이닝 6승5패 평균자책점 3.89” 예측

부상에 시달리면서도 뛰어난 성적을 거둔 류현진(31·LA 다저스)이 올 시즌에는 지난해보다 성적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야구통계사이트 팬그래프닷컴은 야구 예측시스템인 ZIPS로 예측한 2019년 메이저리그(MLB) 각 구단 선수들의 성적을 공개하고 있다. 31일(한국시간)에는 다저스 선수들의 성적을 예상했다.

ZIPS는 다저스가 클레이턴 커쇼, 리치 힐, 위커 블러, 류현진, 마에다 겐타, 홀리오 우리아스로 선발진을 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지 언론은 류현진을 제3선발로 꼽고 있다.

ZIPS는 류현진이 올 시즌 17경

기에 선발 등판해 88이닝을 던지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예상 성적은 6승 5패 평균자책점 3.89다. 예상 대체선수대비 승리기여도(WAR)는 1.2다. 여기에 탈삼진 82개, 볼넷 21개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류현진은 왼쪽 시타구니 부상 탓에 지난해 5월부터 3개월 동안 전역에서 이탈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15경기에 선발 등판해 7승 3패 평균자책점 1.97의 뛰어난 성적을 올렸다. WAR은 2.60이다.

2017시즌이 끝난 뒤 ZIPS는 류현진이 22경기(선발 21경기)에 등판해 112%이닝을 던지면서 평균자책점 4.15에 WAR 1.3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상 탓에 소하

한 이닝은 적었으나 평균자책점에서는 한층 뛰어난 성적을 냈다.

세부적인 수치에서도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90이닝당 탈삼진수는 지난해 9.7개에서 8.39개로 줄어들고, 90이닝당 볼넷 수는 지난해 1.6개에서 2.15개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90이닝당 피홈런은 1개에서 1.43개로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ZIPS는 다저스 에이스 커쇼가 26경기에 선발로 나서 11승 6패 평균자책점 2.91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블러가 9승 6패 평균자책점 3.31, 힐이 9승 7패 평균자책점 3.81, 마에다가 12승 8패 평균자책점 3.63 등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기성용, 태극마크와 작별...“대표팀 응원 축구팬으로”

국가대표 은퇴 선언...2008년 데뷔 후 110경기 소화

지난 10년간 한국 축구의 중원을 책임진 기성용(뉴캐슬 유나이티드)이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다.

대한축구협회는 30일 “기성용이 서신을 보내 국가대표 은퇴를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기성용은 2008년 9월5일 요르단과 친선경기를 통해 태극마크를 달았다. 2010 국제축구연맹(FIFA)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포함해 세 번의 월드컵 무대를 밟았다. 특유의 중원 조율 능력과 패스 실력으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2019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안컵에도 출전했다. 그러나 대회 1차전 필리핀과 경기에서 부상으로 팀을 이탈했다. 이 경기가 그의 마지막 대표팀 경기가 됐다.

통산 A매치 110경기에 출전, 10

골을 기록했다. A매치 출장 기록은 한국 선수 역대 8위에 해당한다.

기성용은 “축구 인생에서 국가대표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라며 “그간 많은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지난 아시안컵에서 팬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으로 대표팀이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파울루 벤투 감독님의 지도 아래 동료들과 후배들이 힘을 모아 극복하리라 믿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기성용은 “대표팀을 응원하는 축구팬의 한사람으로 돌아가 한국 축구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기원하겠다”고 인사했다.

국가대표에서만 물러날뿐 클럽에서는 계속 활약한다.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뉴캐슬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다. 기성용은 “소속팀에서 최선을 다해 팬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BBC “빛난 손흥민, 올해의 선수도 가능”...MOM 선정

후스코어드닷컴도 가장 높은 평점 8.2점 부여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복귀전에서 리그 9호골을 터뜨리며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한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에게 현지 언론의 칭찬이 이어졌다.

손흥민은 31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에 있는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2019 EFL 24라운드 왓포드와 홈 경기에서 0-1로 뒤진 후반 36분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귀중한 동점골을 기록했다.

지난 5일 트란미어 로버스와 2018~2019 FA컵 3라운드 이후 25일만의 골이자 리그 9호·시즌 13호 득점포다.

이 골로 분위기를 되찾은 토트넘은 후반 42분 페르난도 요렌테의 헤더 골로 역전에 성공 2-1로 이겼다. 토트넘은 이날 승리로 승점 54(18승 6패)를 기록, 2위 맨체스터 시티(승점 56)를 승점 2점 차로 맹추격했다.

손흥민은 지난 14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그 경기까지 소화한 후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합류, 2019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안컵에 참가했다. 한국이 대회 8강 카타르와 경기서 0-1로 패, 대회를 조기 마감하며 예상보다 이른 지난 28일 토트넘에 다시 합류했다.

그리고 이날 환상적인 골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경기가 끝난 후 영국 언론들도 손흥민을 향한 찬사를 보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손흥민이 빛났다”면서 “그는 대단히 활기찬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지난 주말 UAE에서 돌아온 직후 첫 경기여서 더욱 인상적이었다. 토트넘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17번의 스포트라이트를 기록했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손흥민을 경기 최우수 선수(MOM)에 선정했다. BBC는 “손흥민 스스로 이러한 활약을 이어나간다면 EPL 올해의 선수에도 올릴 수 있다”고 박수를 보냈다.

한편 유럽 축구 통계 사이트인 후스코어드닷컴도 손흥민을 높게 평가했다. 이 사이트는 손흥민에게 양 팀 통틀어 가장 높은 8.2점의 평점을 부여했다. MOM도 손흥민의 몫이었다.

뉴스스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리뷰
湖南新聞 전판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순천, 창새미골, 회현사, 선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